

맘스케어는 좋은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삶의 단계별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한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진행



김경란 (Kyung Ran Kim)
MC, 아나운서

모데레이터



정익중 (Ick Joong Chung)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스크랜튼학부

정익중 교수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아동청소년 복지를 전공 했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동빈곤, 학대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위스타트 서비스가 자리잡는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위스타트 모형을 국가정책화한 드림스타트의 홍보평가 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빈곤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정 외 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IME TABLE

10:00-10:20	환영사 이제훈 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상일 상무(한화생명)
10:20-10:50	기조연설 - 신애라 배우 영아에게 필요한 환경은 '온전한 관심' 입니다.
11:00-12:00	Session 1 : Why? 근본적인 물음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Session 2 : What? 가장 작은 자의 이야기
14:00-14:10	Breaktime
14:10-15:20	Session 3 : How?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아이에게
15:20-15:30	마무리 인사말

기조연설



신애라 (Aera Shin)
배우

신애라 배우는 미혼모, 가정위탁, 입양가정, 보육원, 퇴소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을 지원하는 기관을 돕기 위해 설립된 엔젤 12(Angel 12) 국제 어린이 양육기관인 컴패션(Compassion)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2명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경험한 보호대상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문제를 알리고 입양 및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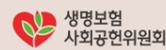
RE:SOUND
CONFERENCE
2021

아동양육시설 영아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맘스케어의 첫번째 컨퍼런스

2021.12.8.WED
AM10:00 - PM 3:30
여의도 전경련 회관

MOM'S CARE

주최



주관



파트너



*파트너사는 리:사운드 컨퍼런스의 연사 참여기관입니다

맘스케어가 첫번째 탐험을 시작합니다.

맘스케어 RE:SOUND 컨퍼런스 2021 은
‘아동양육시설 영아의 양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만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권고사항은 (입양 → 가정위탁 → 그룹홈 → 아동양육시설) 현실에서 반대로 실행되는 것일까?”

RE:SOUND 컨퍼런스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가정과 같은 환경’,
즉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권고사항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정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영아의 약 90%가
아동양육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입양’, ‘가정위탁’ 등의 제도를 위한
노력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후 36개월은 아이의 인격 형성은 물론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자양분을 만드는 시기인 만큼 양육시설
영아들의 시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RE:SOUND 컨퍼런스는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권고사항과 반대로 가고 있는 사회 현실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영아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SESSION

Session 1 : Why?

근본적인 물음

우리 사회가 아동양육시설 영아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김현주 과장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김윤경 (가정위탁부모)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 연구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형 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형양육시설 보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보호대상 영아 발생 시 가장 높은 비율로
아동양육시설로 배치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Session 2 : What?

가장 작은 자의 이야기

아동양육시설 영아들이 만나는 세상

이소영 원장(이든아이빌)

최규석 부장(한화생명/CSR전략팀)

함의영 대표(피치마켓)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육시설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영아들이 만나는 세상과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Session 3 : How?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아이에게

아동양육시설 영아의 양육환경 개선 방안

이연 소장(이연아동발달센터)

강선우 의원

이선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각자의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아동양육시설 아이들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울타리를 경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인생의
자양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영아 시기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